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慶南中同窓會報

발행·편집인: 정 행 권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O/T 41호
Tel: (051)245-7551 ~ 3 · FAX: 245-7550
인쇄처: (주)방방인쇄
Tel: (051)636-9477 · FAX: 636-9478

본부 제28대 회장에 정행권 (9회) 선출 “구직·구인 돕는 시스템 구축”

지난 3월19일 오후 6시30분 부산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열린 본부동창회 제41차 정기총회는 정행권 수석부회장(9회·협성문수 회장·사진)을 임기 2년의 제28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공로패 부문별 수상자

- △조직활성화·명예 선양 유공자
이길상(6회·경야회 고문)·김선동(10회·부산시교육위원)·제병민(13회·본부 용마산악회장)
- △홈커밍데이행사 유공
정해전 배재욱(17회 부산·재경 회장)·김태우 김동조(27회 부산·재경 회장)·최기영 남우현(37회 부산·재경 회장)
- △지역회 발전 유공
김성규(10회·울산회 고문)·이경재(13회·마창회 고문)·조규중(15회·대구회 고문)·김덕수(19회·대전회 고문).

제41차 정기총회... 전국서 420여명 참석

박동열 회장(8회·해운대성심병원장)으로부터 동창회기를 인수한 신임 정행권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새 집행부는 모교60년사 편찬사업의 적극 추진, 홈페이지를 이용한 구직·구인 시스템 구축과 직능별 동문 간 정보 교류망 확충, 국내외 지역회와의 협력 증진, 미결성 지역회 발굴·조직화, 모교 발전 지원책 강화 등에 심혈을 쏟겠다”고 말했다.

창·양교 교장 및 회장 인사·권오현 고문 격려사·천신일 재경동창회 회장 축사(박호문 사무국장 대독·15회)·결산보고 및 예산안 승인·임원 개선 등 순으로 진행됐다.



본부동창회 제41차 정기총회. 전국에서 모인 동문들이 교가를 제창하고 있다.

결산보고·예산안 승인

박동열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권오현 김근준(이상 1회) 정소영(6회) 조대제(7회) 본부고문과 권명미 경남고·김철곤(16회) 경남중 교장을 비롯해 부산 서울 울산 창원 마산 진주 대구 대전 등지에서 420여명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임기 중 신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용마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동문으로 돌아가 여러분들과 함께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은 물론 명예 선양을 위해 변함없이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길상 (6회) 등 13명 공로패

만찬 직후 개최된 총회는 국민의례·교가제창(지휘: 김경희 재경 고문·9회)·회장단 및 내빈 소개(2면 명단 참조)·유공동문 표

부회장 선임권 위임·전형위 구성 세 감사 유임 의결

박 회장은 인사말에 앞서 동창회 조직 활성화와 발전에 공로가 많은 이길상 동문(6회) 등 13명에게 각각 공로패를 수여했다(명단 별도 참조). 총회는 주요의안 중 2003년 본부운영 등 결산보고 심의에서 방봉우 감사(10회·이원회계법인 대표)의 감사보고를 듣고 이를 통과시켰고, 임원 개선을 통해 정행권 수석부회장을 만장일치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총회는 사회봉을 넘겨받은 신임 정 회장이 제안설명한 2004년 예산안을 승인했고, 부회장단 선임권을 정 회장에게 위임했다. 본부감사 선출은 이춘기 동문(8회·전 부산대 교수)의 동의로 구성된 전형위원회(위원: 권오현·이길상·이춘기·김경희·최득호)의 결의에 따라 현임 방봉우·박철병(23회·공인회계사)·김태우 감사(27회·변호사) 유임을 통과시켰다. <2면에 계속>

홈커밍 초읽기

“추억·우정·감동의 축제 기다려지네”

추억과 우정과 감동이 어울리는 홈커밍축제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봄이 활짝 열린 남녘-벚꽃을 비롯, 봄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모교 교정은 올해도 이달 하순부터 5월 초순 사이 펼쳐질 졸업 50, 40, 30, 20주년 기념 행사로 열기 가득해질 전망이다. 올해 축제는 제8, 18, 28, 38회 동기가 주인공. 이 중에서도 제38회동기가 동문-가족들이 가장 농도 짙은 열정을 분출시킬 것으로 점쳐진다.

리셉션·기념식·기념사진 촬영·만찬(가족 연주회 포함)·여흥 순으로 이어진다. 둘째날인 25일에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시내관광(해운대~광안대교~태종대)·경남중·고 방문(기념품 전달)·자갈치시장 생선회 파티(신동아 생선회센터 3층)·재경 용마가족 환송회 등으로 우정을 꽃피운다.

■제18회동기회 제18회는 오는 4월24~25일 졸업40주년 행사를 벌인다.

■제38회동기회 제38회는 오는 5월 1일 오후 모교와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졸업 20주년 만에 처음으로 추

제38회 5월 1일 20돌잔치
제18·28회 4월24~25일
제8회 4월 10일 모교방문
5월 28~29일 청송기념제

억과 우정이 물결치는 홈커밍데이 행사를 펼친다.

김형석 부산회장이 주재하는 이날 축제는 오후 3~5시 모교 국산기념관에서 20여명의 은사를 비롯, 동문-가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거행한다.

이어 일행은 오후 6~9시 해운대 그랜드호텔 연회장에서 ‘우정의 밤’ 한마당을 연출한다.

■제28회동기회 제28회는 오는 4월24~25일 졸업30주년기념 축제를 펼친다.

이원철 황인업 부산·서울 회장이 공동주재하는 행사는 첫째날인 24일 오후 해운대 일원에서 열린다. 이날 오후 5~11시 메리어트호텔에서

김길제·강정일 부산·서울 회장이 공동주재하는 행사는 첫째날인 24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경남중·고 방문(기념촬영)·해운대 웨스턴 조션호텔에서 기념식·만찬·여흥 등으로 진행된다.

일행은 둘째날인 25일 전북 죽으로 아침식사를 한 후 시내관광에 나선다.

특히 행사준비위원회는 지난 4월9일 오후 6시30분 동기회관인 서면 유원오피스텔 뷔페에서 은사를 초빙한 가운데 ‘사은의 밤’을 열었다.

■제8회동기회 제8회는 지난 4월10일 모교에서 문국·이규환 부산·서울 회장 공동주재로 졸업50주년 홈커밍행사를 치렀다(3면에 관련기사).

제2이벤트는, 5월 28~29일 부부동반으로 경북 청송에서 관광과 주왕산 산행 등으로 연출된다.

제 27회동기회 임원 명단

◎ 고 문

임기대 박명준 김현수 옥명훈 장기남
김용태 김태우 문두찬 이판세

◎ 직 전 회 장 조용수

◎ 회 장 김원대

◎ 수석부회장 김황열

◎ 부회장

강병훈 김석운 김병호 정형찬 장인철
김용섭 임용한 전창민 권명보

◎ 수석총무 김경진

◎ H·P총무 최경룡

◎ 이 사

강영건 강주훈 권순홍 김대룡 김덕원
김병용 김상문 김성주 김주호 박규욱
박창곤 배재홍 백승엽 송인무 신한원
윤일근 이영욱 이인규 이태주 정광모
최휴진 태기섭 한수길 허 한 황호경

◎ 감 사 박현호 이종경

◎ 본부동창회 부회장 윤정환

◎ 본부동창회 감사 김태우

◎ 본부동창회 이사

임기대 문두찬 이판세 조용수 김원대

<지역별>

• 수영·남·해운대구

회장 김태우 총무 백민호 고문 김덕희

• 서·사하구

회장 박찬석 총무 윤지한

• 동래·북·금정구

회장 이봉춘 총무 김상중

<직능별>

• 야구회

회장 박찬석 총무 조영일 감독 배기용

• 골프회

회장 윤정환 총무 허봉호

• 등산회

회장 강봉호 총무 이종찬

• 기우회

회장 정민화 총무 윤지한

• 마라톤회

회장 박상훈 총무 이형복 감독 한경애

취임사

정행권(9회)

본부동창회 회장 · 협성문수(주) 회장

존경하는 국내외 용마가족 여러분. 화창한 봄날, 모두 평안하시지요?

저는 지난 3월 본부동창회 제41차 정기총회에서 제28대 회장으로 선임되어 화합과 결속을 원동력으로 하는 공동체의식의 확산과 새로운 도약대를 구축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책무 수행은, 국내외 20만 용마가족의 열정 넘치는 참여와 아낌없는 성원을 고갱이로 삼는 집행부가 신뢰성·투명성·일체감·실천력을 근간으로 하여 추진할 때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임기 2년 동안 저희 집행부가 가일층 동창회의 조직 강화와 용마가족들의 화합·결속을 촉진하는 데 신명을 다 바치고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를 기획·총무·조직·행사·홍보위원회 등으로 나눠 부회장들에게 이를 고루 맡겨 다음의 몇 가지를 추진하여 내실을 쌓고자 합니다.

첫째, 모교60년사 편찬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그간 역대 회장님들이 맡아 풀려 '파종'을 했고, 박동열 직전회장님이 꾸준히 '물'을 뿌렸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집행부의 총명과 능력을 결집하여 거름을 주고 흙을 복돋아 '싹'이 돋아나게끔 열정을 바칠 것입니다. 태스크포스트를 보강하여 국내외를 통해 다각적인 자료수집을 전개한 후 집필·편집과정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둘째, 본부 홈페이지에 구직·구인 시스템을 접목시키겠습니다. 용마가족들의 취업문제와 인력이 필요한 동문 기업체에 충실한 용마가족을 추천하여 상호 희망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우

모교 60년사 편찬 등 적극 추진

려고 합니다.

셋째, 우리 동창사회에는 다양한 직능별 운영자가 많습니다. 필요 시 상호 정보를 교환하면 만족을 극대화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동문이 급한 병으로 수술을 받으려고 할 때 본부 홈페이지 '직능별 정보망'을 클릭한다면 동문 전문의를 쉽게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국내외 지역회와의 협력 증진은 물론 상호 교류사업을 펼쳐 관심사를 제고시키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섯째, 지역회가 결성되지 않은 곳을 발굴해 조직화시켜 용마가족들의 지변확대를 꾀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발굴하고 발굴하면 조직이 확대·강화되리라 믿습니다.

여섯째, 모교 발전에 대한 지원대책을 전향적으로 강구하려고 합니다. 재학생들의 학력 증진과 교육환경 개선에 보다 폭 넓은 대안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요즘 우리 용마가족들은, 증폭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 경제적 불황국면 등으로 몸과 마음이 편한 날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려하고 탄식하거나 절망하고 포기하거나 할 때가 아닙니다. 시련을 극복하게 되면 회복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희망의 길은, '?'표처럼 꼬부라진 굴절의 시각을 감동이 수반되는 '!'표처럼 가치관을 깨끗하게 정립시키고 긍정적 인식대를 확산시킵니다.

동창애(同窓愛)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동창회에 대한 우리의 긍정적 시각과 애정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용마가족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보시면서 매섭게 충고하시고 뜨겁게 격려해주십시오.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1면 '본부 제41차 총회' 발음>

집행부 · 내빈 참석자

△모교 교장=권명미 경남고 교장 · 김철곤(16회) 경남중 교장
△본부고문=권오현 · 김근준(이상 1회) · 정소영(6회) · 조대제(7회)
△본부감사=방봉우(10회) · 김태우(27회)
△본부부회장=정행권(9회-수석) · 강진평(10회) · 오원수(11회) · 손부홍(15회) · 서정승(17회) · 남진현(19회) · 김형오(20회-국회의원) · 박재삼(22회) · 박기욱(23회-시의원) · 박종웅 · 서병수(이상 25회-각 국회의원) · 엄호성(28

회-국회의원) · 최거훈(30회) · 박명진(33회) · 정운성(36회)
△기관장=조길우(16회) · 부산시의회의장 · 이영오(20회) · 한국은행 부산지점장 · 장수민(23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재경동창회=김경희 고문(9회) · 천신일 회장 · 박호문 사무국장(이상 15회)
△울산회=양동건 회장(18회) · 박홍조 부회장(22회)
△마산-창원회=이경재 고문(13회) · 김진환 회장(20회) · 김수용 사무국장(24회)
△대구-경북회=조규중 고문(15회)

△본부 직능회장=제병민(13회-용마산악회) · 박정홍(14회-경총회) · 김경재(19회-등대회).

추진 우송 · 화합 기증자

△축전 = 오거돈(21회) · 부산시장권한대행)
△화합 = 부산시내 고교 재경동창회협의회(회장 김경희 · 재경고문) · 동아고동창회(회장 박진업) · 부산고(회장 김진재) · 부산상고(회장 신상우) · 부산여고(회장 김귀남) · CJ(주) 제약사업부 · 중외제약 부산지점.

동기회발전기금 거액 쾌척

재경27회 총회...하창우 500만원 · 전 풍 100만원

제27회재경동기회는 지난 3월 11일 오후 7시 서울 압구정뷰페

에서 동문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104정기총회(사진)를 개최했다.



박영빈 회장(경남은행 부회장 · 원내)이 주재한 총회는 김훈탁 총무의 사회로 진행돼 올해 사업계획안 · 결산보고 ·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장원규 동문을 감사로 선임했다.

특히 하창우 · 전 풍 동문은 동기회발전기금으로 각각 500만원과 100만원을 즉석에서 쾌척해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또 최근 시인으로 문단에 등단한 전태원 동문의 자작시 낭송이 분위기를 정경계 연출했다. 이날 모임에서 전 세계의 핸드폰시장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정인철 동문이 뒤풀이 총경비를 부담했다.

천신일(15회) 체육훈장 맹호장 수상

재경동창회 회장이자 대한레슬링협회 회장인 천신일 동문(15회 · 사진)은 지난 3월31일 정부로부터 체육훈장 맹호장을 수상했다.



천 동문의 이번 수상은, 지난 1996년부터 레슬링협회 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3차례 세계선수권에서 6개의 금메달과 방콕아시아게임에서 7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리나라 레슬링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것.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현재(주)세중 · 돌박물관 · IT업체인 세중나모인터랙티브의 회장인 천 동문은 그간 △레슬링인 취업 확대 △세계 최초 레슬링승단체 도입-단종 발급 △어린이 레슬링교실 운영 △체육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평창군청 등 3개 여자팀 창단 등에 힘썼고 △삼성 등 여자팀 창단을 추진 중이다.

천 동문은 "아테네올림픽에서 2개의 금메달을 따겠다"며 "협회는 메달 입상자에게 역대 최고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홍욱(19회) 경남고 학교운영위원장



부산대 사범대 교수인 허홍욱 동문(19회 · 사진)은 최근 경남고 학교운영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허 동문은 지난 3년동안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학교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은 김학현 직전위원장(15회)의 후임으로, 학력 증진 · 교육환경 개선 등 모교 발전과 관련된 제반 운영방향을 이끌어어나가는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대 사범대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일본경도대 농학부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받은 허 동문은 부산대 사범대 교수(생물교육과)로 발탁된 이래 이 대학 사범대 학장과 교육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 별세한 허 응 전 한글학회 이사장의 친조카인 허 동문은 동기회장(졸업 30돌기념 홈커밍행사준비위원장 겸임) · 본부 이사 등을 맡아 동문 · 가족들의 유대강화에 앞장섰다.

허 동문은 "여러 위원님들의 뛰어난 의견들을 잘 조율하고 결집된 방향을 모교 발전에 직결시키겠다"고 말했다.

적은 투자로 큰 효과 거두는 회보 광고!

원정 시정의 화질실 문인을 추구하고. 믿음 없는 조철수의 진공식 변기 시스템

특히 제품!

제37회 정기총회

동창회경매장

제5회 용마골프대회

회보 광고로 홍보하면 사업번창과 역량결집 위한 '황금알'을 낳습니다.

각 동기회 · 직능회 · 국내외 지역회와 사업하는 용마들의 광고협찬은 알찬 회보를 만드는 활력소입니다. 성원 바랍니다.

한국 최고의 유아 · 초등 · 중등 · 영어학원

Little Campus

051-552-XXXX

제37회 정기총회

제37회 정기총회

제37회 정기총회

'50년만의 귀향' 벅찬 감동

제8회 홈커밍데이 1차 행사로 모교 둘러 추억 만끽 5월 28~29일 부부동반 청송에 모여 관광유람

제8회동기회 졸업50주년기념 홈커밍축제가 지난 4월10일 모교 방문을 시작으로 막을 열었다. 홈커밍축제는 제1이벤트 모교 방문·제2이벤트 청송관광유람으로 짜여져 있다. 문 국·이규환 부산·서울 회장이 공동주재한 이날 행사에는 김재정·주상우 은사와 동문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 경남고(교장 권명미)를 방문한 일행은 교장실에서 두 은사에게 기념품을, 권 교장에게는 격려금을 각각 전달했다. 모두들 한결같이 50년 만의 귀향에 설레이는 가슴을 가누지 못했다. 추억 갖든 교정을 둘러본 칠순

의 노병(?)들은 미리 기념식수한 70년생 오엽송 앞에서 새로운 추억으로 간직할 기념촬영(사진)을 했다. 학교 근처 식당에서 치러진 오찬회는 배주원 동문의 사회로 진행. 두 은사 회고담·은사 별명 유래 소개·두 은사와 김봉길 동문의 제자로 모교에 재직 중인 김종태(15회)·강동원 동문(16회) 인사·축배 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경팔회는 오는 5월28일~29일 부부동반으로 경북 청송 일원에서 홈커밍축제 제2이벤트인 '관광유람'을 펼친다. 일정은 △28일 달기약수터(점심식사)~단합회(청송관광호텔) △29일 주왕산 산행·관광~오찬~석별 순이다.



5월 하순 전통의 '수학여행'

제16회 고문·이사 연석회의... 새 회장 김정균

제16회동기회는 지난 3월25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중앙동 동기회사무실 앞 명성관에서 김정균(사진) 회장을 주재로 올해 첫 고문·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고문·이사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김정균 회장 명의로 상정된 △정영일 직전회장의 고문 추대 △임원·이사 동의안 △'04예산안 △행사 계획안(5월 중순 수학여행 등)등을 의결했다. 한편 같은 달 3일 부산 중구 중앙동 신북경관점에서 동문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영일 회장 주재로 열린 '04정기총회는 김정

균 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고 이겸일 감사를 유임시켰다(사회·강종국 사무국장). 고문·이사 연석회의에서 추진된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고문 : 차상영 등 21명 △본부부회장 : 송규정 진병일 △본부이사 : 김정균 이종철 이채언 정영일 △부회장 : 강원경 김영부 박용일 박종덕 신평양 △감사 : 이겸일 △사무국장 : 강종국 △간사 : 최정일 조명택 △이사 : 길정도 등 30명 △동호회장 : 골프회 정영일 기우회 이채언 산악회 이겸일 의약회 신평양.

김 청 (9회) 서울컨트리클럽 부이사장



김 청 동문

명호근 (15회) 쌍용양회 대표이사 부회장



명호근 동문

박종영 (16회) (주)태영 대표이사 사장



박종영 동문

박용환 (17회) 한양대 건축대학장



박용환 동문

문원경 (22회) 행정부 민방위 본부장



문원경 동문

강종호 (43회) 중앙일보 사내 변호사



강종호 동문

김 청 동문(9회·청원 회장)은 지난 3월3일 열린 (사)서울컨트리클럽 이사회에서 부이사장에 선임됐다. 한국외국어대 러시아어학과를 졸업한 김 동문은 진로그룹 상임고문 등을 역임했고 '2002년 자랑스런 외대인'으로 뽑혔다. 명호근 동문(15회)은 지난 3월19일 열린 쌍용양회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명

동문은 쌍용양회 대표이사 사장 등을 지냈다. 이번 영진은 외환위기 이후 6년 만에 경상후자를 달성하고 창사 이래 최고의 경영성과를 이룬 점이 높이 평가됐다. 박종영 동문(16회)은 (주)태영 부사장 재임 중 최근 열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사장으로 영진했다. 성균관대 경제학과와 고려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박 동문은 (주)태영에 입사한 이래 상무이사·관리본부장 부사장·태영레저 사장·대표이사 부사장 등을 지내는 등 이 회사에서 잔뼈가 굵은 '태영맨'이다. 박용환 동문(17회)은 3월2일 한양대 건축대학장에 취임했다. 한양대 공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박 동문은 일본 와세다대와 도쿄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양대 건축과 교수 동문회장. 문원경 동문(22회)은 최근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에 취임했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17회)에 합격한 문 동문은 울산시 행정부시장 등을 지냈고 공직생활 중 도시공학·경제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강종호 동문(43회·변호사)은 지난 3월22일 중앙일보 사내 변호사로 선임됐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강 동문은 사법고시(43회)에 합격, 사법연수원(33기)을 수료했다.

이환균 (14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동문

장수만 (23회) 부산-진해 경제자유청장



장수만 동문

이환균(14회·왼쪽)·장수만 동문(23회)은 최근 각각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취임했다. 이환균 동문은 서울대 법대와 행정대학원(행정학)을 졸업한 후 행정고시(6회)에 합격했고, 재경원 차관·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건설교통부 장관·미국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 초빙연구원·법무법인 로고스 고문·세종대 경영대학원장·

세종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장수만 동문은 고려대 경제학과·동 대학원·미국 브라운대학원을 졸업했고 행정고시(15회)에 합격한 후 원호처 근무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경제기획원 조정1과장·세계은행 파견·재경원 종합정책과장·재경부 공보관·주 뉴욕총영사관 영사·국제세미나 준비기획단장 등을 역임했다.

등을 역임했다. 부산시문화상(언론부문) 수상. 이 동문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부산 MBC 기자로 활동하다 부산방송으로 옮겨 보도부장·보도국장·정책편성기획실장 등을 지냈다. 봉생문화상(언론출판부문) 등 수상.

이종승 (16회) 부산지하철선교교회 추진



이종승 동문(16회·목사·사진)은 부산지하철 안전운영과 기독교 선교를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지하철선교교회(가칭) 설립을 추진 중이다. 부산지하철 기독교선교협의회 선교회장을 맡고 있는 이 동문은 앞으로 범내골 부산교통공단 근처나 지하철 어느 역에서든지 걸어서 10분 안팎 거리인 곳에 교회를 세워 본격적으로 선교활동을 펼 계획이다. *연락처=우편(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173 문화APT 507호)·전화(051-254-0470·011-294-6796)·E 메일(olympic1943@daum.net).

PSB 사장 박용길 (16회) 이사 이만수 (28회)



박용길 동문



이만수 동문

박용길 동문(16회·왼쪽)은 PSB(부산방송) 상무이사 재임 중 최근 열린 이 회사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사장으로, 이만수 동문(28회)은 정책편성기획실장에서 이사로 각각 승진했다. 박 동문은 부산대 화학과를 졸업한 후 한국문화방송 기자

로 입사한 후 부산문화방송에서 활동. 사회·편집·보도제작부장·편성부장(부국장 대우) 등을 지냈고, PSB창립과 함께 이 회사로 옮겨 보도국장·보도총국장(이사대우)·상무이사

현란한 '벚꽃비' 맞으며 청춘구가

삼공산악회 아미~천마산 등정기 [정용하]

삼공산악회 제176차 정기산행은 지난 4월4일 벚꽃이 좋은 아미산~천마산에서 이뤄졌다. 일행은 문장호 회장을 비롯, 김우삼·박동욱 부부 등 12명으로, 모두의 컨디션을 고려해 7부 등산을 산책(?)하는 바람에 산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산으로 서서히 진입하자 사방에 봄꽃이 현란하다. 20분을 지나 구봉산 밑에서 막걸리를 한 잔씩 돌리고 휴식시간을 길게 잡는다. 7부 능선의 평탄한 길을 따라가니 멀리 엄광산의 '꽃천지'가 장관이다. 엄광

산 밑을 걸어가며 이대로 꽃마을에 도착하면 이르겠다고 하여 꽃마을 앞의 조그만 산을 경유하여 가기로 하였다. 꽃마을 앞 산에서 모교 쪽으로 보는 풍경은 완전한 꽃동산, 꽃의 바다다. 이것을 보고 K군 왈 '저 좋은 데서 내가 왜 공부할 안 했을까?' Y군의 답 '니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여기 같이 있는 것 아닌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얼굴 보기 힘들었을 것 아닌가.' 꽃마을에 도착(12:00), 설악이모집으로 자리를 잡는다. 자리에 앉아 있으니 장상헌 동문이 합류한다. 동동주 파전



두부 시래기국으로 점심을 하고 천천히 다시 산행을 시작한다. 꽃마을에서 수목원 쪽으로 접어들어 길을 물어가며 구덕산~시약산 밑으로 계속 탄다. 대티고개를 거쳐 까치고개 아스팔트길에서 오른쪽 산으로 올라 가파른 산길을 힘줄은 김상직 동문을 선두로 힘겹

게 올라가니 공동모지가 나왔고 산이 이어져 있다. 일행은 이 길로 계속 전진하면 피정고개에 도달하게 되고 감천과 다대포로 이어지는 아스팔트길을 만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로 하였다. 까치고개~왼쪽 산으로 내려와 골목길을 꼬불꼬불 돈다.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있다가 우

아미산 벚꽃비를 만끽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삼공산악회 회원들.

리 일행을 보며 "꽃이 좋다보니 여기까지 등산하러 오는 사람이 다 있구만"한다. 아미산 쪽의 벚꽃은 부산에서 제일 나은 것 같다. 벚꽃눈이 쌓인 길을 내려오며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비를 한껏 맞는다. 완전히 벌유천지이다. 우리는 벚꽃비 속에서 갖은 포즈로 사진을 찍고 멍하니 한참을 앉아 휴식을 취한다. 벚꽃 속에서 함께 걷고 한때를 보낸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좋은 시간이었다. 아미산에서 부산대학병원과 옛 법원 사잇길로 하산한다(15:00). 후기 : 일행은 석수탕에서 목욕한 후 남포동~자갈치~남천동을 돌며 삼겹살·조개구이·고래고기·양곱창 등으로 배를 채웠고 노래방에서 객기를 부렸다.

워싱턴의 아름다운 성금

모교발전기금 1000달러 모아 본부에 기탁



미국 워싱턴의 용마가족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교발전기금을 모아 본부동창회 사무국으로 보내왔다. '워싱턴의 성금'은 모교 63주년에 즈음해 마련한 것으로, '영원한 마음의 고향'에 대한 짙은 향수(鄉愁)가 배어 있다.

워싱턴지역회는 지난 3월17일 저녁 박경배 총무(29회) 자택에서 유대 강화와 조직 활성화를 꾀하고 모교발전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월례회를 개최했다. 구경명 회장(18회·한-일식 레스토랑 운영·사진)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칠순의 김동석 이형석 동문(이상 5회)을 비롯한 23명(부인 8명 포함)이 참석했다. 특히 이 지역에서 파

견근무를 하고 있는 변기석(20회) 배석규 동문(24회)도 자리를 함께해 즐거움이 넘쳤다.

동문·가족들은 구 회장의 협조로 잔값에 마련한 맛깔스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기금을 쾌척, 목표액 1000달러를 모으는 데 성공했다.



화합과 결속을 자랑하는 워싱턴지역회 용마가족들 왼쪽 줄 앞에서부터 차정환 배석규 신희재 김광수 성광수 동문 오른쪽 줄 앞에서부터 박경배 안준철 구경명 변기석 김동석 이형석 홍역석 김영호 동문

Billboard

전화 (051) 245-7551~3

팩스 (051) 245-7550

제15회 서클별 열정 쏟아

오세창·박용 회장 선임

제15회동기회의 직능·지역·반향회 3월 모임이 열기를 더했다. 사하회(회장 오세창)는 23일 오후 7시 중화요리집 왕가에서 제54차 정례

회(14명 참석)를 열어 신입 회장에 오세창 동문을 선임했고, 의약회(회장 손부흥)는 15일 오후 7시 보수동 동화반점에서, 삼육회(회장 이승남)는 12일 오후 7시 온천장의 울진거북이횃집에서, 이화회(회장 박 용)는 9일 오후 7시 송운한정식에서 각각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화회는 이날 박 용 동문을 신입회장으로 선출했다.

삼팔 회원들, 단체로 무료 건강검진

화친회(회장 임병철)는 9일 오후 7시 연제구 거제동 유성횃집에서 제141차 정례회를, 삼팔회(회장 허두영)는 8일 오후 7시 중앙동 통운뷔페에서 부부동반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7차 정례회를 각각 열었다.

특히 삼팔회는 허두영 회장의 배려로 13일 7명이 허 회장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경부합동행사 집행부에 위임

사모회(회장 손부흥)는 5일 오후 7시 온천장 중화요리집 금문에서 총회를 열고 손 회장을 유임시켰다.

이날 회원들은 경부합동반향회 개최 계획안을 집행부에 위임했다.

한편 고대연 동문이 손 회장 유임 축하로 만찬비 전액을 부담했고 손 회장·박찬호 총무·김종한 동문이 금일봉을 쾌척.

18해운대회 '황금어장'서 신선한 만남

제18회동기회 해운대회는 지난 3월 18일 오후 7시 부산 해운대 메리어트 호텔 맞은편 황금어장횃집에서 3월 월례회를 열었다.

장연식 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김동회 동문(본부 용마바둑회장) 등 12명이 참석, 정담 속에 살아가는 참모습들을 서로 보여주며 훈훈한 만남이 됐다. 다른 지역회 동문들의 참석도 환영하고 있는 해운대회는 '문호개

경연회 4월 수업 성황

북한산 진달래봉 등정

경연회(제10회경연회)는 친목회별 4월 수업시간표를 확정, 게시했다.

강남회(회장 김해룡)는 오는 27일 오후 12시30분 서초 기왓집순두부에서 봄소식을 서로 전할 예정이고, 사니조아(회장 이계창)는 지난 10일 불함산·17일 관악산에 이어 오는 25일에는 북한산 진달래봉에 도전한다.

분당회, 흙수달 부부동반 참석

바둑모임 동수회(회장 김상태)는 24일 정오 회장 사무실에서 만나 '4월의 기왕'을 뽑고, 골프모임 경록회(회장

재경 경팔회 노익장 과시

4월 바둑 우승 이창근 차지

재경경팔회의 클럽별 봄 활동이 왕성한 기운 속에 펼쳐지고 있다.

바둑모임 팔선회(회장 이유환)는 지난 4월3일 오후 1시30분 한일기원에서 정례회를 개최.

이날 우승은 이창근, 준우승은 이종수 동문이 차지. 한편 지난 3월6일 열린 대국에서는 전영배 배주원 동문이 각각 우승·준우승을 했다.

골프모임 노제복·정종욱

골프모임 잔디회(회장 배주원)는 지난 4월1일 오전 10시 안성CC에서 6팀이 겨룬 제128회 월례대회를 개최.

이날 남자부는 우승 노제복·준우승 이양호·3등 홍기성·니어리스트상 김영길·행운상 조운제 동문, 여자부는 우승 정종욱, 니어리스트상 김정희씨가 각각 차지했다.

수락·관악·도봉산 차례로

산우회(회장 김영철) 회원들은 지난 4월10일 수락산을 등정했고 17일 관악산·24일 도봉산을 오를 예정이다. 한편 3월에는 6일 관악산(12명)·13일 도봉산(8명)·20일 수락산(10명)·27일 관악산(12명)을 올랐다.

방에 따라 날로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정배)는 22일 자유CC에서 라운딩을, 분당회(회장 서진홍)는 분당 기왓집순두부에서 화목을 다진다. 여도회를 흡수통합한 분당회는 흙수달에 부부동반으로, 짝수달에 동문끼리만 모인다.

'우정의 스매싱'한편 승부

테니스모임 정우회(회장 최형백)는 오는 16일 정오 과천정부종합청사 내 관문테니스장에서 '우정의 스매싱'을 펼친다.

안산회(회장 박철민)는 13일 오후 12시30분 안산 중앙역 다리목추어탕 집에서, 강북회(회장 강재환)는 6일 정오 중앙극장 앞 평래옥에서 각각 만나 쌓인 회포를 풀었다.



일성콘도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가람회 회원들

가람회, 가족동반 덕유산서 1박2일 단합산행

가람회(회장 임영길)는 지난 2월28일~29일 전북 무주 근교 덕유산에서 신춘산행대회를 열었다(일성콘도 1박). 부부동반 16명은 29일 무주리조트 콘도라~향적봉~백련사~구천동계곡~삼공리 코스의 산행을 즐겼다.

폭설 뚫고 봉황산 정수리 밟아

제21회 백두대간 제12구간 종주기 [신][날][석]

제21회동기회 백두대간 종주팀은 지난 1월18일 제14구간(신의테재~윤지미산~화령재~봉황산~비재) 끊어타기에 성공했다.

이번 도전은 지난해 6월 종주에 나선 이래 처음으로 맞은 눈길산행이어서 대원들 (김익수 김형세 김현기 신남석 이재화 전기환)의 긴장과 기대감과 극기감이 온몸을 감쌌다.

종주들머리 신의테재는 눈이 쌓여 있다. 08:10 스패츠를 차고 산행에 나선다. 앞서 상주 시내 해장국집에서 이른 아침 요기를 한 일행은 상주~보는 25번 국도를 따라다 낙서리에서 북쪽으로 좌회전해야 할 것을 그 아랫길인 새길을 택하는 바람에 지난번 밟았던 제13구간 종점인 자기재를 다시 밟았다. 그래서 이곳에서 모서면(牟西面) 면소재지~북

쪽~화동(化東)을 거쳐 신의테재에 닿았던 것.

오늘 구간도 경북 상주의 중화지역(中化地域)을 지나기 때문에 구간 중 최고인 봉황산(740.8m)을 제외하곤 거의 300~500m급의 아르막한 아산이 주류를 이룬다.

신의테재를 떠난 일행은 20분 후 농로를 만났고 아산~농로를 거쳐 무지개 폭포가 있는 무지개산 어깨쪽지에서 북서진하여 윤지미산(538m)에 닿았다. 눈은 점점 깊이를 더했다.

무척 가파른 하산길은 미끄럽기 짝이 없다. 이때 저쪽에서 30여명의 다른 대간팀(대전의 한 장비점인 바위산장이 인솔)이 올라왔는데, 대부분 배낭도 없고 더러는 운동화차림이다. 그렇다보니 선두와 후미 사이의 주력에는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었다. 이제 백두대간은 종주방법에 따라서는 누구든지 완주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윤지미산을 내려서니 완만한 능선길이다. 여기에서 모지가 있는 360봉~발두령~임도(11:44)를 거쳐 12시10분 화령재에 발길을 내려놓았다. 불재로 불리는 화령(火嶺)재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등 1시간 동안 폭설 다음 봉황산으로 떠났다.

제21회 동기회 백두대간 종주 대원들이 봉황산 정수리에 올라서서 새차게 쏟아지는 눈세례를 받으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눈이 깊고 가파른 오름길이라 숨이 차올랐다.

4번째 암봉을 돌아오르니 눈발이 흩날리다가 순식간에 사위가 어두워지면서 형제봉이며 대궐터산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눈세례를 맞으며 일행은 12시45분 봉황산 정수리에 올라섰고 기념촬영을 한 후 비재를 향해 내려섰다(14:53).

눈발이 심했다. 비재까지 약 3.4km, 1시간 30분쯤 더 걸어야만 이 구간을 끝낼 수 있었다. 지친 일행은 710봉까지 몇 개의 암봉~대간 분기 봉인 660봉(15:30)~부드러운 산길~450봉 오른쪽 어깨쪽지의 묘지에 닿았고(16:22), 잠시 쉬었다가 16시35분 비재에 내려 종주를 마감했다. 오늘 종주 거리는 17.06km에 종주시간은 8시간 25분이었다(종주누계 235.63km/690km).

※제15구간 끊어타기인 비재~형제봉~속리산 천황봉~문장대~밤터재~경미산~늘재' 곳곳에 암봉이 도사리고 있어 눈이 녹은 3월 말~4월 초로 미웠다.

110여 용마가족 야호! 자굴산 가득해

본부 용마산악회 제15차 산행대회(정기·04년 제1차)가 지난 3월28일 경남 의령군내 자굴산(897m)에서 열렸다. 동문 91명과 가족 18명 등 모두 110명이 참가한 이날 산행 대회는 제병민 회장(13회)이 총지휘를, 박종규 총무(31회·변호사)가 산행대장을 맡았다. 일행은 이날 오전 10시15분 산행들머리인 의령 칠곡면 내

본부 용마산악회 제15차 등산대회

조리에 도착했고 10분간 장비 점검을 했다. 오전 10시25분 산행에 돌입한 후 절터샘(11:40)~금지샘(12:00)을 거쳐 가쁜 숨을 달래고 땀을 식혔다. 오후 12시30분 이곳에서 점

심식사를 했고, 폭 쉬다가 오후 1시30분 하산을 서둘러 내조리 갈림길 고개(14:30)~절피재(15:30)를 넘어 오후 4시 양천마을에 닿아 산행을 끝마쳤다(총 산행시간 5시간35분). 목욕 후 쇠고기국밥과 수육으로 저녁식사를 마친 일행은 귀가길에 올라 밤 9시30분 부산에 도착했다.



금정산 상계봉에서 동창회 발전과 용마가족의 화합과 결속을 비는 시산제를 올리고 기념촬영을 한 본부 용마산악회 회원들.

“동창회 발전·화합결속 비나이다”

제9·10·12·13회 40여명 금정산 상계봉서 시산제

본부 용마산악회 제9·10·12·13회 산우 40여명은 지난 2월8일 금정산 상계봉에서 시산제를 올리고 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한동대(9회) 전 용마산악회 회장이 주재한 이날 시산제에서 제병민 용마산악회장은 준비한 제물을 차려 놓고 엮드려 합장

한 가운데 이어 이규채 일삼산우회장이 “오늘 모인 우리들은 용마산악회와 본부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자”는 주제의 축문(강귀동 동문 마련)을 낭독했으며, 동문들이 차례로 절을 올렸다. 일행은 점심식사를 한 후 하산, 온천장에서 헤어졌다.

제216차 산행대회 성황 일오산우회, 금정산서

일오산우회는 지난 3월21일 금정산에서 가족동반 22명(부인 4명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제216차 산행대회를 열었다.

김황영 회장이 주재한 이날 산행은 임상택 동문이 산행대장을 맡았다. 본부동창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던 재경동창회 박호문 사무국장을 환영하는 뜻도 담긴 이날 산행은 범어사~금정산 4망루~동문(점심식사)~삼밭골 코스에서 이뤄졌다. 일행은 온천욕(허심청)을 한 후 민속한정식집에서 단합회를 펼쳤다. 임상택 산행대장과 이영정 동문이 각각 10만원과 5만원을 헌납했다.

제30회 새 회장 황철민 갖가지 생선회에 주눅들어



제30회동기회는 지난 4월1일 오후 7시 부산 수영구 민락동 우리장학집(서재원 동문 운영)에서 '04정기총회를 개최, 황철민 동문(다비오다 대표·사진)을 새 회장으로 뽑았다. 김병기 회장이 주재한 총회는 동기회 현황 및 사업보고, 결산 및 예산안 승인, 임원 개선 등으로 이어졌다. 부회장 선임권은 신임 회장에게 위임했다. 특히 모처럼 얼굴을 내민 권해철·마승수 동문, 연구년을 받아 부산에 머물고 있는 함주혁 동문 등은 번갈아가며 축하의 술잔을 받았다.

“동창회 도약 위해 희망의 화살 쏘라”

기독교동문 신우회 정례회

기독교동문의 모임인 신우회는 지난 3월16일 오후 7시30분 부산 남구 대연동 산성교회 본당에서 올해 두 번째 정례회를 열었다. 이요셉 회장(15회·리틀캠퍼스 이사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예배는 공기화 부회장(21회·대연교회 장로·부산교육대 교수)의 인도에 따라 찬송·기도·성경봉독(왕하 12:14~19)·말씀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모임에는 산성교회 허원구 담임목사를 위시, 이 회장·이종승(16회·부산지하철 선교교회 설립준비위원장)·강형식 목사(26회·예인교회)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산성교회 허원구 담임목사는 '구원의 화살을 쏘시오'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싸구려 화살도 명궁이 된다"며 "희망의 화살을 쏘 절망과 갈등과 혼돈의 문을 활짝 열자"고 선포했다. 이날 예배는 박종현 동문(21회·호산나교회 안수집사) 기도에 이어 김홍진 동문(21회·산성교회 집사)의 특별찬양으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전태섭 동문(25회·대동교회 장로)의 헌금기도 후 허원구 목사 등이 오는 3월30일 카지호스탄으로 떠나 그곳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게 되는 배위영 동문(34회·부민교회 집사)을 위한 파송안수를 치렀고 선교활동금을 전달했다.

<뒤란이 시골시골해서>

조달곤(13회) 시집 펴내

시인이자 대학교수인 조달곤 동문(13회·사진)은 최근 시집 <뒤란이 시골시골해서>를 펴냈다(작가정신). 문학평론가인 고려대 이남호 교수는 작품해설을 통해 '시집<뒤란이...>는 키 작은 겨울 들꽃이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스스로 겨울 들꽃과 같은 삶을 지향하는 시의 마음이 키운, 겨울 들꽃 같은 시들의 꽃밭이다'라고 평가했다.



해 있다 돌아서는 내 등 뒤가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뒤란이 시골시골해서- 중에서. 조달곤 시집은 '노랑부리저어새' 재약산의 봄' 등 모두 50편의 시로 엮여져 있다. '나의 긴 잠을 깨우고 실어증을 치유해준 시골 텃밭의 유순한 흙밭과 키 작은 야생화들에 감사한다'는 시인의 말처럼 아름다운 빛깔로 채색되어 있다. 이남호 교수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개성을 잃어버리고 획일적인 복제시대가 되어가는 세상을 안타까워하는 시편들, 여행길의 심화와 풍경을 그린 시편들도 모두 결국은 키 작은 겨울꽃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변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했다. 경성대 국문학과 교수인 조 동문은 경북사대와 동아대 대학원을 졸업했고 <문학기>을 통해 등단했으며 '의장된 예술주의' '한국근대시문학 연구' 등 여러 연구서를 펴냈다.



동문이 펴낸 새 책

<쪽지편지>

오형철(16회) 수필집

약사이자 수필가인 오형철 동문(16회·사진)은 두 번째 수필집 <쪽지편지>를 8년 만에 펴냈다(도서출판 아이울리브). 오형철 수필집에 실린 60편의 글들은 인터넷과 각종 문학지, 신문 등에 실렸던 것들로,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바탕으로 한 시선으로 세상과 이웃의 살아있는 모습을 따뜻하게 조명하고 있다. 수필집 <쪽지편지>의 글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읽어나가다 보면 가까운 이웃과 지인들, 세상 속의 여러 갈래의 현상들이 저마다 향긋한 삶의 냄새를 풍기고 있음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딸이 남겨둔 쪽지편지는 이렇다. '아빠,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서서 쓸쓸



하실까봐, 아빠가 반기는 쪽지편지를 씹는다. 가족들과 함께 지낸 시간은 너무나 짧았지만, 내 생활을 위해 가득 충전하고 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지..., 더욱 알고 갑니다. 다음에 오면 아빠, 양, 예쁘게 꾸며 드릴게요.' 오 동문은 '쪽지편지'를 통해 '보내는 마음, 떠나는 마음은 항상 사랑하는 마음이다. 언제까지나 손을 흔드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한다. 여긴 미워하는, 질투하는, 다투는, 비난하는, 비방하는 마음이 없다. 오직 사랑하는 마음만 있을 뿐이다'라고 솔직하고 있다. 중앙대 약대를 졸업한 후 김해에서 동신약국을 운영하는 오 동문은 목실한 크리스찬(김해제일교회 장로)으로 한국문인협회와 한국수필가협회 회원이며 천리안문단 작가이다. 첫 수필집은 <엘리베이트에 갇힌 여자>.



삼삼산우회 동문·가족들이 영축산 정상에 올라 호연지기를 펴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영축산에 용마기상 제33회, 제62차 산행대회

제33회는 지난 3월14일 경남 창원군내 영산 근교 영축산(628m)에서 가족동반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2차 산행대회를 펼쳤다.

강주태 회장이 주재한 이날 산행은 김법영 전 회장이 산행대장을 맡아 편안하고 즐겁게 리드해 일행 모두가 피곤한 줄을 몰랐다. 정상에서 "후라 경고!"를 외친 일행은 하산 후 부곡에서 온천욕을 하고 단합회를 즐겼다.

“살얼음 막걸리 향긋한 겨울초 구수한 된장맛 찰떡궁합”

제18회 부부동반 천성산에

제18회동기회는 지난 3월7일 경남 양산 근교 천성산에서 가족동반 26명(부인 6명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 등산대회를 열었다.



김길제 회장이 주재한 이날 산행대회는 조정갑 산행대장의 자상한 리드로 영산대 앞~천성산~무지개폭포 코스에서 5시간에 걸쳐 심신을 담금질했다. 천성산 정상(사진)을 밟은 후 벌어진 점심식사에서는 살얼음

이 긴 막걸리와 향긋한 겨울초와 구수한 된장이 '찰떡궁합'을 이뤄 여기저기서 "최고의 별미!"라는 감탄사가 터졌다. 일행은 부산으로 돌아와 온천장의 허심청 옆 3대추어탕 집에서 해단식을 가졌다.

"LSD 참 재밌어요"

(장거리 천천히 달리기)

27마라톤회 건각들의 신종 역주법 [백민호]

요즘 27마라톤회 건각(健脚)들이 LSD에 푹 빠져 있다.

"뭘, LSD? 그 악명 높은 환각제 LSD(할루시노젠)란 말인가?"

천만의 말씀, 27마라톤회의 LSD는 '장거리를 천천히 달리는' 뜻의 'Long Slow Distance'의 약자이다.

지난 3월27일 오후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해변 '젊은이의 해' 방구로 불리는 카페촌 앞 도로~이기대 큰 고개 간 도로.

원색의 유니폼으로 멋(?)을 잔뜩 부린 27마라톤회 7명(김태우·배재홍·최경룡·백민호·황호경·태기섭·홍일점)의 러너들이 편안한 모습으로 천천히 뛰고 있다. 연도의 시민들이 박수를 치고 자동

은 소리도 무시한(?)채 이기대 큰 고개의 반환점을 돈 후 쓴 살같이 달리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웹지기 최경룡 선수 등의 역주에 이신전심(以心傳心)을 읽었다.

이날 선수들은 오후 3시 '민락동 수변공원 어린이놀이터(출발점)~광안리해변도로~부경대~이기대 큰 고개(반환점)' 왕복 21km 완주에 성공. 성취감에 도취됐다.

해단식은 저녁 6시30분 해운대신시가지의 일성회관에서 치러졌다. 이 자리에는 밤때만 되면 빠지지 않는 장기남·이상열 선수와 집에서 마음으로 응원하다가 생선회파티라고 하니 단숨에 달려온 김신실·서유선 여사가 합류해 더욱 즐거웠다.



스퍼트를 끝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27마라톤회 동문·가족들.

차 드라이버들은 열이면 열 모두 차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낸 채 신기한 듯 바라본다.

주자들은 여유롭게 정답을 나누기도 하고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뛰는 자세를 두고 웃기도 한다. 자신의 회한(?) 품을 감박 잊은 듯...

바른 자세와 모범적인 복장에 최신형 스톱워치로 구간별 시간을 측정하며 뛰는 김태우, 힘이 펄펄 넘쳐 이기대 힘든 언덕길을 백하여 뒤에 처진 선수들과 보조를 맞춰주며 다시 오르는 황호경, 등산복과 등산모에다 남의 운동화까지 빌려 신고 뛰는 바람에 관중의 시선을 집중시킨 배재홍, 어부인의 참가로 '완전한 사랑'을 연출한 태기섭, 다리가 긴 선수들보다 더 빨리 달려 결승점에 1등 골인한 슛다리 최경룡, 귀에다 웹피3를 꽂은 탓에 뒤에서 지르

스폰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전제로 어떤 동문이 맡아 한턱 쏘다.

LSD란 이런 것

마라톤훈련법의 하나인 LSD(Long Slow Distance 약자)는 '장거리를 천천히 달리는' 뜻을 담고 있다.

환각제 할루시노젠(LSD)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주법(走法)은 △대화가 될 정도의 즐거운 페이스로 달리고 △바닥이 두꺼운 신발로 리드미컬하게 달림으로써 심폐기능의 향상과 지구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준다.

짧은 거리를 피로해질 때까지 뛰는 것이 아니라, 장거리를 편한 페이스로 더 멀리 뛰기 때문에 초체력을 쌓기 때문에 효과(Fitness)를 거둔다.

- 호. 051-702-4141, 011-596-7470
- 신성우=부산 북구 화명동 2264 롯데낙천대아파트 105동1702호. 051-333-4032
- 박준진=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1325-1. 051-522-1097, 016-272-1097
- 허광열=부산 수영구 남천2동 삼익비치 203동 1106호. 051-623-7266

마산-창원지역동창회

- 동창회 사무실
- 경남 마산시 석전2동 223-7 대아빌딩 11층. 055-294-1419
- 김자선(8회)=점질방 진시향 개업
- 김창권(10회)=1월26일 별세



이종운 감독 (왼쪽)의 빈틈없이 발휘하는 지휘력을 따르고 있는 경남고 야구부 선수들이 '전국 최강자'를 꿈꾸며 기량을 갈고닦고 있다.



모교 야구부 '전국 최강자' 예약

동계강훈 통해 사발 이종운감독 비장술 터득 미국의 세계적 선수 송승준(33회) 지도 큰 기여

지난 겨울 '지옥훈련'을 극복한 모교 야구부 선수들이 봄과 함께 열린 시즌 첫 대회(대통령배 예선)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여 본선행 티켓을 따 '전국제패 행진'을 예약한 느낌이다.

경남고(교장 권명미) 선수들은 이종운 감독(39회)이 사발한 채 휘두르는 지휘봉에 따라 강추위도 있고 팀 플레이로부터 투수

및 타격 훈련·체력 및 개인기 연마·수비전략 강화 등 고강도 훈련을 쌓았다. 그래서인지 선수들마다 패기와 자신감이 넘쳐나고 있다.

'우승 재창출'의 집념을 불태우고 있는 선수들이 이처럼 뛰어난 기량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이 감독의 카리스마적 비장의 조련술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동계강훈 총 '마이너리그 입성' 초임기로 전망되고 있는 송승준 동문(53회·몬트리올 엑스포스·아래)의 '사발합류'가 큰 자극제가 됐던 것

<바로 잡습니다>

회보 345호(2004년 3월 6일) 1면 '조길우(16회) 부산시의회 의장 당선' 기사 중 '1998년'은 '1996년'으로, 3면 '제10회동기회 총회'의 '부회장 여의도 동문'은 '의의도 동문'으로, 5면 '동문이 펴낸 새책'의 '서상국(31회)'는 '서상국(30회)'로 각각 바로 잡습니다. 또 회보축색판 제3집 10쪽 광고 중 '선사내과전문의원'은 '선사내과전문의원'으로 바로 잡습니다.



선수들은 '세계적 선수인 송 선배와 함께 훈련을 받으며 한 수 배우는 것이 영광'이라며 사발한 선배가 날마다 진중일 달리고 공을 던져대는 '천천후 모습'에서 충격(?)을 받았다.

후배들은 선배의 체력훈련과 하프피칭, 배팅훈련 등은 물론 중후한 매너·성실한 훈련 자세·승부근성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닦아갔다.

송승준 동문은 지난 겨울(11월 말~2월 초) 모교 동계훈련장에서 후배들과 함께 뛰면서 여러 가지 기량을 전수시켜 '살아있는 교본'으로 불리었다.

최근 미국으로 돌아온 송 동문은 "꼭 풀타임리거가 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송 동문은 재학시절 탁월한 힘과 기량으로 여러 차례 모교의 전국제패를 이끌었던 대형선수이다.

경남중 30연승 무패행진

부산 야구 사상 지역대회 첫 대기록 수립

무패행진의 경남중이 부산 야구 사상 첫 30연승(지역대회)의 대기록을 세워 '야구명문'의 전통을 계승·선양하고 있다.

경남중(교장 김철곤-16회·감독 노재완-사진)의 이 같은 기록은, 지난 3월19일 부산 구덕야구장에서 열린 '04부산소년체육대회' 겸 제3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부산 예선 중등부 A조 3차전에서 대전중을 '선발 타자 전원안타' 기록을 세우며 15-2 5회 콜드게임으로 눌러 결승(3승 기록)에 진출함으로써 이뤄졌다.

경남중의 부산 지역 대회 30연승(무) 대기록 수립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2년 9승=전국 중학야구에 이어 11월 제14회 롯데기 부산·울산·경남 중학야구대회 4승 더해 총 9연승.

△2003년 18승=3월 소년체육대회 예선 3승·춘계리그 3승1무·4~5월 제50회 전국중학야구 및 제40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중학야구



예선 5승1무·6월 제33회 대통령기 전국중학야구 부산예선 4승·11월 제15회 롯데기 대회 3승으로 총 27승.

△2004년 3월 말 현재 3승=3월19일 전국소년체육대회 예선 대회 3승으로 총 30승.

한편 경남중은 2001년과 2003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우승과 지난해 대통령기 전국중학야구대회 준우승으로 전국대회에서도 기량을 뽐내고 있다.

노재완 감독은 "지난해 동계훈련 중 부상 선수가 많아 걱정했으나, 대체 선수들이 분발해 연승행진을 이어나갔다"며 "올해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2연패 기록을 세울 각오"라고 말했다.

- 은사소식**
- 김종빈=부산 북구 화명동 대우 리버파크 109동 203호. 051-364-2513
- 허민호=부산 금정구 구서2동 선경아파트 8동 309호. 051-512-0698
- 이종희=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동아에코빌 A동 1804호. 031-426-0095 분재원 나무마을 12호
- 이종경=부산 서구 서대신동 3가 61-25. 051-242-3412, 011-884-3418
- 송두성=부산 해운대구 좌동 1333 대우1차아파트 108동 2201호. 051-701-5162
- 이희문=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396 대림1차 아파트 102동 302

- 어디서 무엇을**
- 박소웅(16회)=1월11일 창원호텔에서 자녀 결혼
- 정광우(17회)=2월8일 아리랑호텔에서 자녀 결혼
- 조동제(18회)=2월15일 창원호텔에서 자녀 결혼
- 박암남(19회)=유창노래주점 개업(김해)
- 김현(19회)=YERON테크 창원지사장
- 이정호(20회)=창원지방법원 집행부 집행관
- 문상대(21회)=국가정보원 인천사무실 전보

- 하현성(22회)=효성중공업 본사 비서실 전보
- 최현규(24회)=창원지검 사건과장
- 박종근(25회)=2월15일 기능대학에서 자녀 결혼
- 이양춘(26회)=경남 운수알선협회 전무
- 이종인=(26회)=이종인 신경과 개원
- 한중우(28회)=마산의료원장 퇴임 경상대 복귀
- 박춘도(29회)=마산여고 교사
- 박성철(29회)=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정경현(32회)=경남도경 경무과 기획실 전보
- 문세운(36회)=(주)우열 대표이사 취임

- 제 8 회**
- 동기회 사무실
-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59-2 삼영빌딩 502호 051-468-3460
- 金炳璧=3월14일 모친 별세
- 鄭金出=고신언론사(기독교보신문 월간고신잡지) 사장. 02-3476-0153, 5월5일 오전 12시 대림뷔페에서 차녀 수진양 결혼. (자택)부산시 연제구 연산1동 578 한성기린아파트 101동1905호. 051-862-1589
- 崔載赫=경남 진해시 두동 1202 차골 배리 응동참숯가마. 055-551-2764, 019-321-7627

이 자리는 보고싶은 용마가족들이
근황을 전하며 만나는 우정의 광장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국내외 거주하는 동문 여러분께서는
동기회나 본부동창회로 소식을 보내십시오.

<6면에 이어>

제 15 회

제 26 회

제 9 회

제 16 회

제 27 회

제 12 회

제 21 회

제 11 회

제 13 회

제 29 회

제 28 회

제 30 회

제 31 회

제 33 회

기별대항 뉴시대회 5월 2일 개막

전통을 자랑하는 본부회장기 제15회 기별대항뉴시대회가 오는 5월2일 경남 지역 저수지(장소 대회 당일 발표)에서 열린다. 대회 집행위원회의 계획안에 따르면, '04기별대항뉴시대회(주최 본부·주관 경수회)는 △어종을 붓어로 국한하고 △채비는 대뉴시 2대(릴·삼봉 금지)로 하며 △기별 선수는 3인1팀(의무적으로 1팀 이상 출전)으로 해

본부 주최·경수회 주관 단체·개인·조별 기량겨뤄 대 뉴시대 2대로 붓어만

기량을 겨룬다. 진경일 경수회장이 주재하는 올해 대회는 예년처럼 기별대항전인 단체전 1~3위, 참가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 1~3위, 조별 1~3위를 뽑아 시상한다.

다. 이밖에 장려상·감투상·자연보호상·미기상·인기상·가족상 등도 수여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각 팀당(3인 1팀) 10만원이다.

오는 4월20일 오후5시까지 신청을 받으며, 문의는 △본부동창회 사무국(전화 051-245-7551~3·팩스 051-245-7550)이나 경수회 사무실(전화 051-254-7557·팩스 051-241-554)로 하면 된다.



제6회 새 회장 이길상

제6회동기회는 지난 3월24일 오후 6시30분 부산 사상구 서부버스터미널 건너편 파라곤호텔(전무이사 배종권 동문) 연회실에서 '04정기총회를 개최, 이길상

동문(경야회 고문·원내)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허광열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40여명이 참석,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배문수 정건용 부회장과 최병수 총무를 연임시켰다.



4월 중 가족동반 등산대회

제33회 새 회장 배종현

제33회동기회는 지난 3월10일 오후 7시30분 부산진구 부전동 대림빌딩 연회실에서 '04정기총회(사진)를 개최, 배종현 동문(아이들치과의원 원장·원내)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송중현 회장이 주재한 총회는 4월 중 가족동반 등산대회(산우

회 주관) 개최 등 올해 사업계획안과 결산보고 및 예산안, 개정회칙안 등 주요의안을 승인했다. 동문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임원 개선을 통해 송중현 직전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제13회 새 회장 김장웅

제13회동기회는 지난 1월28일

오후 6시 부산 서구 서대신동 산정농원(이범경 동문 운영)에서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04 정기총회를 열어 김장웅 동문(사진)을 신임 회장으로, 차영일 동문을 수석부회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제25회 새 회장 김진우

제25회동기회는 지난 2월20일 오후 7시 부산진구 부전동 대림빌딩 뷔페에서 '04 정기총회를 열고 김진우 동문(자모병원장·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회장=김진우 △수석부회장=손기천 △총무=옥동훈 여성조.

내년 홈커밍축제 행사준비위 구성

제29회 회장 권두진

제29회동기회는 지난 2월25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중앙동 중부경찰서 옆 향미원에서 '04정기총회를 개최, 권두진 동문(해찬건설 대표이사·사진)을 신임회장으로 뽑아 내년 홈커밍데이 행사준비위원장을 겸하게 했다. 오세용 회장이 주재한 총회는

4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사업 및 이사회 경과보고에 이어 결산 및 예산안을 의결했고, 임원 개선을 통해 집행부를 새로 출범시켰다. 특히 총회는 내년 봄에 치를 졸업30주년기념 홈커밍데이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행사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고 신임 회장에게 위원장직을 맡겨 태스크포스팀 가동을 추진키로 했다.



건축재정으로 내실화·회칙 대폭 보완

제27회 신임회장 김원대

제27회동기회는 지난 2월26일 오후 8시 부산 연제구 연산 교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 부근 해암뷔페에서 열린 제27회동기회 정기총회.

조용수 회장이 주재한 총회는 이태주 총무의 사회로 진행, 결산보고(감사 보고 박현호 감사)와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임원을 개선했다. 총회는 예산의 건축 집행권을 회장단에 일임, 동문 모두가 부담없이 참석해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 극대화를 꾀하며 모양새를 갖춰 나가기로 했다. 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회칙을 대폭 보완·수정키로 했다. △회장=김원대 △수석부회장=김형열 △부회장=강병훈 김석운 김병호 정형찬 장인철 김용섭 임용한 전창민 권명보 △감사=박현호 이종경 △총무=김경진.

서면 GOLF 회원권 매매 전문

골프·콘도·회원권·GOLF채·부동산매매전문

보라·에덴벨리CC·정산·매운대C.C 분양주관사
회장 여성 열(17회) 대표 여성 조(25회)
 서면GOLF : 부산시 진구 부전2동 524-13(서면 공작창터널입구)
 TEL:803-0654~5, 804-1811, 805-0707, 807-0707
 817-0606~8, 818-0707, 819-0707, 819-0606
 FAX:804-1810 080-201-7777 / H P:011-854-0707
 E-mail:seomyengolf@hanmail.net http://www.smgolf.net
 서면부동산 : TEL:815-3355~9, 080-001-3366 / FAX:815-3366
 (서면골프2층) 상가 점포 임야 건물 매매 교환 전문
 충무GOLF : 부산시 서구 충무동1-10(충무동로타리 지하철입구)
 TEL:(051)241-4344~5, 241-6641~2, 254-0707, FAX:241-6643

風水地理

○묘지의 선정 및 묘지(길흉화복)감정
 아파트, 주택, 빌딩, 공장터 선정 및 감정
 ○理論과 實務를 겸한 답산 감정 경력 35년

신라대학교 사회교육원 } **출강중**
 부산교육대학교 사회교육원

회 장 : 문준호 (6회·구 형방)

부산시 연제구 거제3동 577-1
 TEL : (051)861-7877 / (051)755-5100
 H·P : 016-529-5001 / 010-8000-5552